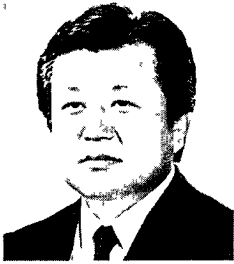


四象折衷形體質과 臨床

趙 春 一



一. 四元論과 事物心身

四象醫學이 세상에 발표된지 1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그 분이 제시한 基本精神도 분명하게 알지 못한채 방치상태라는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존 학설과는 전혀 다른 독창적인, 그야말로 이세상에 처음 주창한 학설이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이나 기업가층에서 기존 증치의학(證治醫學)의 시각에서 四象醫學을 理解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론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엉뚱한 학설이 되고 마는 것이다.

시대적 배경은 性理學이 너무 오랫동안 지배한 비생산적인 사회적 배경에서 實學思想으로 사고가 변화하는 朝鮮中期以後 實學者들이 어떻게 하면 기존 성리학에서 脫皮해서 새로운 가치관의 哲學概念을 設定하느냐 라는 문제로 고심하던 시기였다. 이것이 기존학설의 틀을 탈피한 四象哲學이 탄생하는 創案동기라고 볼 수 있다.

기존 한의학은 天人合一思想으로써 陰陽과 五行으로 분류하였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사람을 분석한 것은 빠져 있습니다 儒學에서는 知人正己, 즉 인간은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나므로 그래서 언제나 자기를 교정하고 완전한 쪽으로 개선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四象醫學은 自己正己의 方法論과 四元論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四象醫學 속에는 五行이 존재할 수 없다 그냥 陰陽만 있다 그러니까 오행을 認定하는 기존학과 四象醫學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四象하면 太少陰陽이라고 질문 할 수 있으나 太少陰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周易에는 太少陰陽論이 있다. 그러나 李濟馬先生은 事物心身이라 하였다.

즉 事物心身이란 心身은 人間이고 事物은 宇宙다. 그러니까 宇宙에는 自然現象만 있을 수 없고 人間만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같은 비중의 心身事物論이 四象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음, 즉 보이지 않는 기(氣)와 보이는 물질이」 四

象이라 할 것이다

儒學의 根本道 思想은 修己治仁인데 먼저 자기자신을 완성하고 궁극에 가서는 백성들을 편하게 하라는 것이 기본정신이다. 修己治仁을 하자면 그 방법론에 있어서 修己도 되어야 하고 四象을 깊이 연구해야 하는데, 그 연구하는 방향을 中庸에서 찾은 것이다. 中庸에는 盡己盡物, 成己成物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을 알고 사물의 근본을 꿰뚫어야 인격이 완성되고 비로소 사물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진다는 것이다.

이 원리를 증용에서 인용하여 四元論을 事物心身으로 정립한 것이다. 먼저 이것을 알고 그 배경과 精神을 이해해야 하리라 생각된다.

1. 正四象形과 折衷人形體質

네가지 체질 중 그 어느 한가지가 뚜렷하게 100%로 나타나는 것은 많지않고 조금씩 다른 체질이 절충되어 있는 체질이 있으니 이것을 折衷形이라고 설명해 볼 수 있다.

절충형은 왜 이루어 지느냐? 父와 母가 체질이 같은 사람이면 그 자녀가 부모 어느 쪽을 닮아도 한체질로만 태어 날 확률이 높지만, 부모가 같은 체질이 아닐 경우 어느 한쪽을 닮거나 둘다 조금씩 닮는데 많이 닮은쪽 체질이 자기 주인 체질일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천품인 것인데, 체질 중 약 80% 정도는 모습, 체질, 성격 등이 딸일 경우 아버지 체질을 닮고, 아들일 경우 어머니 체질을 닮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은 임상에서 참고로 하시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통계를 내어 더 좋은 내용의 사실이 발굴 되었으면 좋겠다.

2. 약간씩 배합된 2체질과 3체질

닮은 것을 절충형체질이라고 한다면 태음성 소음인이나 소음성 태음인이 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 체질을 감별하다 보면 태음인인 것 같기도 하고 소음인인 것 같기도 한 혼란을 겪게 되는데, 어느쪽 체질에 치우쳐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관찰해야 할 것이다. 태음인인 것 같은데 소음인일 경우는 소음인의 특징인 소화관계, 신경이 예민한 관계, 피부, 모습 등을 종합하여 비중이 큰쪽을 선택하여 약을 쓰게 되는데 소음인의 기관지, 폐, 계통의 병에 투약할 경우 태음인병이라고 해서 태음인 처방을 써서는 안된다. 이러한 것이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체질을 정확히 알고 처방선택을 분명하게 해야만 치료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3. 절충형 체질 찾기

가. 태음성 소음인

태음인인지 소음인인지 분별이 잘 안될 경우가 있다 그러나 두 체질의 특징이 모두 조금씩 있지만 소음인 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 있는 체질이다.

• 소음인의 특징을 점검해 본다.

- ① 손바닥에 땀기가 있다.(태음인은 전혀 없다)
- ② 대변이 설사도 있고 변비도 있다.(태음인은 설사 없음)
- ③ 모발이 소수(小豎)머리이다 (태음인은 전혀 없는 형)
- ④ 피부가 지성이다 (태음인은 건성피부이다) 이와같이 소음인을 생김새가 태음체질같이 보인다고 해서 잘못 판단한다면 약이 효력을 내기는 커녕 패증이 나기 때문에 5첩 이상을 복용할 수 없다

나. 소음성 태음인

소음인인 것같기도 하고 태음인인 것같기도 한 사람인데 태음인은 손, 발바닥에 땀기가 없다.

- ① 피부는 건성피부
- ② 수면은 양호하다
- ③ 소화가 잘 된다
- ④ 음주량이 제법 있다.

그러나 소음인 특징이 약간씩 있는 사람이므로 몇 %쯤 절충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판단대상에 두어야 약을 투약할 때 참고가 된다.

처방을 고를 때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淸心蓮子飲, 麻黃定喘湯, 熱多寒小湯의 처방이 기본이 되는 체질이다. 만약 소음인방을 투약하면 설사, 소화불량, 복통이 틀림없이 오게 되어 있다

다. 소양성 소음인

특징은 우선 성격이 급하면서 빨리 풀어지지 않고 꼼꼼한 사람

- ① 일을 빈틈없이 하는 사람
- ② 글씨를 깨끗하게 쓰는 사람
- ③ 사무가 틀림없는 사람

- ④ 몸은 깡마른 편이고, 앞 이마에 머리가 약간 빠지거나 영성한 사람
- ⑤ 약간 곱슬머리인 사람이다
- ⑥ 이, 목, 구, 비, 골격을 참조한다
음식보다 약이 잘 받지 않을 경우가 많은 체질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라. 소음성 소양인

소음성 소양인과 소양성 소음인과는 어느쪽으로 치우쳐 있느냐를 찾아내는데 주로 봐야할 경우

- ① 모발이 약하고 가늘다.
- ② 성미가 급해도 잘 풀린다.
- ③ 음식을 많이 먹고, 술을 청탁 불문코 잘 마신다.
- ④ 아침 꼭두새벽에 일어나고
- ⑤ 감기가 겨울보다 봄, 여름에 잘 걸린다.

마. 소양성 태음인

소양성 기질과 특징이 있다고는 하나 태음쪽에 기울어진 느낌을 받을 수 있다

- ① 공통점은 식사량이 많다
- ② 성격이 급하다.
- ③ 술을 잘 마신다.
- ④ 다른점은 소양인처럼 깡마르지 않고, 보통체격이거나 몸이 비만형이다
- ⑤ 소양인은 채소를 잘 먹고 태음인은 육미도 잘 먹는다
- ⑥ 머리카락이 많은 편이다.
- ⑦ 태음인은 포용력이 있는 보스형이다.

바. 태음성 소양인

약간은 털털한 성격이 있는듯 하나, 급한 성격은 어쩔 수 없다.

- 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 ② 식성은 육미를 싫어한다.
- ③ 뼈가 가늘면서 단단하다 (쇠, 철근 같다)
- ④ 불의를 보아 넘기지 못하는 의사형(義士型)이다.
- ⑤ 바른말 잘하고 싸움이라면 가로말아하는 사람이다
- ⑥ 감기를 잘 하지 않는다

▣ 사상질총형 체질과 임상

사. 折衷形 體質補藥代表方

- ① 소음성 소양인 - 荊防地黃湯
- ② 소양성 소음인 - 八物湯, 十全大補湯
- ③ 소음성 태음인 - 健康한 體質 后世方 加減
- ④ 태음성 소음인 - 十全大補湯, 八物湯
- ⑤ 태음성 소양인 - 六味地黃湯
- ⑥ 소양성 태음인 - 健康한 體質, 清心蓮子湯, 生脈散 等等
- ⑦ 특히 세가지 체질을 조금씩 다 절충하였다는 의심이 가면 비중을 많이 가진쪽의 체질로 본다. 대개 건강한 사람이 많다 한약방을 찾는 사람은 대개 소음인이다.

4. 방약을 골라 쓰는 자세

● 방약합편 처방

가. 人蔘養胃湯, 治傷寒陰症, 及外感風寒, 內傷生冷憎寒, 身痛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방의 구성으로 보면 비, 위의 냉허를 다스리는 것과 소화불량으로 인한 내상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소음인 약이 분명하다. 만성위염으로 고생하는 소음인에게 아주 좋은 처방이다.

나. 藿香正氣散

治傷寒陰症與身痛, 不分表裏以此導引經絡, 不致變動, 中風, 暑病, 食傷, 挾滯, 外感, 浮腫

- ① 나열된 증세는 소음인일 경우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타체질은 효과를 볼 수 없다.
- ② 특히 太陰人 中風은 烏藥順氣散이라야 한다.

다. 五積散去麻

- ① 治感傷風寒, 頭身痛四肢, 逆冷胸腹作痛, 嘔瀉或傷生冷
- ② 上記方 脾胃와 生冷관계로 사용하는 소음인 약이다.
- ③ 습담을 겸하고 어혈을 풀게 하는 약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변비가 약간 있으면서 비위기능이 약한 소음인 약이다.
- ④ 소양인이 복용했을시는 부작용이 크게난다. 태음인이 복용했을 경우 몇 회 이후에 답답하고 변비가 더 심하게 된다. 평소에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은 오적산을 쓰는 것

이 아니다

- ⑤ 태음성 소음인이라도 麻黃은 去하고 써야 한다.
- ⑥ 瘀血에는 當歸尾 赤芍藥 蘇木 紅花 烏藥 등을 當歸鬚散에 합방해도 무방하다.

라. 四象方 中

• 補中益氣湯 - 治努力太甚, 或飲食失節, 身熱自汗

- ① 비위가 약한사람이 노력태심으로 몸살이 나고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는 이에게
- ② 피로해소와 증초를 보해야 할 소음체질에 으뜸약이다.
- ③ 이 처방에 합방을 해서 쓸때 여러가지 경우를 살펴보면, 음식은 적게 먹고, 대변은 묽으면서, 自汗하고, 비위가 약하고,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없이 몸이 비대하거나 변비가 없는 사람은 人蔘養胃湯을 加減하고
- ④ 腹痛이 있으면 藿香正氣散에 山查肉 神曲 檳榔 麥芽 枳實 草果를 加味한다.
- ⑤ 어린아이들이 배가 이유없이 아프고 不思飲食症에도 特效가 있다.
- ⑥ 消化不良, 便秘, 全身痛(瘀血)에는 五續散去麻黃하고, 山查肉 神曲 檳榔 麥芽 木香 枳實을 各 一錢씩 加한다. 胸鬱이면 蘇葉 加味하여 五續散去麻 단방으로 쓴다
- ⑦ 補中益氣湯을 合方하면 鬱治가 되지 않는다
- ⑧ 補中益氣湯과 香砂六君子湯을 합방하면 不思飲食 食後 포만, 소화불량에 사용한다
- ⑨ 대변이 묽거나 설사인 사람과 특히 어린이가 성장기에 식사부실로 크지 못할 때 續斷, 杜沖, 紅花子를 가미하면 아주 좋다
補中益氣湯은 소음인이 많기 때문에 평소 제일 많이 쓰는 처방이다.

• 十全大補湯

當歸, 川芎, 白芍藥, 陳皮, 人蔘, 白朮, 黃芪, 炙甘草, 白何首烏, 肉桂 各 一錢

방약합편 처방과 다른점은 소화에 지장을 주는 숙지황이 빠지고 소화거담하는 陳皮가 들어가 있으며 陽氣分 약인 白何首烏가 加味되어 있다.

- ① 방약합편의 십전대보탕은 설사하는 사람이 많아 숙지황이 공사인 반하 소화제를 아무리 가미해도 설사 소화불량은 개선되지 않는다.
- ② 소음인 중에도 변비가 있고 깡마른 체질에 초점을 맞춘다
- ③ 비만형에는 쓰지 않는다 체중이 불어나고 살찌기 때문이다.
- ④ 변비성 소화불량에 인삼양위탕이나 오적산을 합방하고 加 枳實한다. 단 설사를 자주하면 쓸 수 없다.

■ 사상절충형 체질과 임상

⑤ 혈열하면 육계를 거하고 변비가 심하면 육계 백하수오를 모두 거한다

⑥ 經水不調에 益母草 三錢을 加하고

⑦ 白帶下에 金銀花 七錢을 加하면 特效가 있다.

• 六味地黃湯, 敗毒散은 少陽人 代表方이다.

感氣藥으로 人蔘敗毒散이 누구에게나 효력이 없는 것은 체질문제이다

• 清心蓮子飲, 麻黃定喘湯, 熱多寒少湯은 太陰人의 代表方으로써 체질을 알면 치료 약이 반드시 있다

二. 四象人體質鑑別의 實際(太陽人 除外)

(1) 모발

① 소음인 - 대머리, 곱슬머리, 모발에 윤기가 있다

② 소양인 - 가늘고 약하다 노란빛이다 수는 적은 편이고 윤기가 없고 듬성듬성한 편이다.

③ 태음인 - 보통이나 말총머리, 몸에는 모발이 적은 편이다.

(2) 눈

④ 소음인 - 부리부리한 큰 눈동자, 검은 눈썹

⑤ 소양인 - 작고 노란빛 눈동자, 눈썹이 얇고 가늘다.

⑥ 태음인 - 적거나 크지도 않은 중간형.

(3) 코

① 소음인 - 우뚝하고 큰코와 넓은 터널의 코구멍

② 소양인 - 날카롭고 뾰족하거나 작게 오뚝하다

③ 태음인 - 납작하거나 보통이다 냄새를 잘 맡는다.

(4) 입술

① 소음인 - 입술이 크고 두터운 편이다

② 소양인 - 입술이 얇고 가늘다

③ 태음인 - 두텁지도 얇지도 않은 중간형

(5) 피부

① 소음인 - 부드럽다. 지방성 윤기있는 반질반질한 피부로서 미인형 피부열이 있어 따

뜻하다.

- ② 소양인 - 얇고, 왜소한 편. 갈비뼈형이며 지방성과 건성피부의 중간형
- ③ 태음인 - 건실하고 건성피부로 겨울에도 특히 건조하여 까칠까칠하여 갈라진다. 아주 차갑다.

(6) 골격

- ① 소음인 - 뼈가 넓직 굽직하여 골격이 발달
- ② 소양인 - 뼈가 아주 가늘고 단단한 편이어서 손목을 쥐고 비뚤어보면 쇠꼬쟁이 같이 딱딱한 느낌을 준다.
- ③ 태음인 - 뼈의 크기나 단단함이 중간형이다

(7) 손, 발바닥

- ① 소음인 - 항상 땀기가 있고 따뜻한 정감이 있다. 부드럽다
- ② 소양인 - 차가우면서 땀이 나거나 나지 않아도 건조하여 갈라지지는 않는다
- ③ 태음인 - 항상 땀기가 없어 갈라진다. 거칠다.

(8) 수면

- ① 소음인 - 잠을 청해야 하고 잠귀가 밝다. 공상하면서 잠을 설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있다
- ② 소양인 - 예민하나 초저녁 잠이 깊고 새벽잠이 없어 일찍 일어나 활동을 하는 편이다. 낮잠은 못잔다.
- ③ 태음인 - 누워버리면 자고 잠들면 아주 둔하다 잠만은 잘잔다.

(9) 식사

- ① 소음인 - 적게 먹고 못먹는 음식이 많다 음식 싫증을 잘 내고, 육미를 좋아한다. 뜨거운 음식을 잘 먹고 차가운 음식, 날것을 먹으면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잘한다
- ② 소양인 - 많이 먹으면서 살찌지 않는 몸, 또 적게 먹고도 할 일은 다한다. 얼음이나 생선회, 채소를 좋아하고 과일을 잘 먹는다. 지방성 음식은 거부반응이 일어난다. (설사)
- ③ 태음인 - 식욕이 왕성하고 아무 음식이나 잘 먹고 소화기능은 아주 좋다 흡수에 치우치고 배설발산이 안되므로 치료의 초점이 된다.

(10) 대변

■ 사상질총형 체질과 임상

- ① 소음인 - 연변이거나, 복통을 수반한 설사를 잘 한다. 혹 변비가 있는 사람도 온열제로 치료한다 건강하지 못할 때 설사를 한다
- ② 소양인 - 보통이지만 설사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도 복통이 없다. 숙지황이 소화제가 된다 대변이 순하면 건강한 상태
- ③ 태음인 - 변비형 설사는 곧 나아 버린다 변비는 특징이다

(11) 성질과 태도

- ① 소음인 - 내성적이다. 얌전, 온순, 섬세, 사색적이고 집에 들어 앉기를 원하고, 움직이기를 싫어한다 매사에 소극적이다. 말없이 엉뚱한 일을 잘하기도 한다
- ② 소양인 - 민첩, 활달하고 똑똑, 명쾌, 경솔하며 급한 성미에 안정하지 못하고 어떤 일이든 술선한다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지만 화를 잘 내고, 바른말을 하기 때문에 모가 난다.
- ③ 태음인 - 의젓, 진중 떳떳하고 포용력 있는 너그러움과 행동이 듄직한 안정감으로 꾸준하며 성취욕이 강하다. 일미호결형이다. 잘 웃는다.

(12) 음주

- ① 소음인 - 술을 못마시는 사람이 많다. 청주, 소주, 양주형 맥주는 설사를 한다. 술에 약하다
- ② 소양인 - 어떤 술이든 잘 마신다. 술마시면 정신을 잃는다.
- ③ 태음인 - 시원한 맥주를 잘 마신다. 청주, 소주는 복통이 난다.(내열의 원인)

(13) 발병율이 높은 질환

- ① 소음인 - 급 만성위장병, 허·냉성 소화불량, 설사, 복통, 회한증 여름은 차가운 음식을 먹기 쉬우므로 위장병, 설사병을 얻기 쉽다 신대 비소의 영향
- ② 소양인 - 신 기능이 약한 만성 요통 기능장애의 정력부족, 주하병. 여름을 못이기고 겨울에는 강하다 감기는 하지 않는다.
- ③ 태음인 - 감기를 잘 한다 고혈압, 변비, 천식, 간질증 치질, 조증

(14)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약재

- ① 소음인 - 숙지황(절대 설사), 황금 시호 적고 마황(위수리한으로 거부반응), 녹용(신수 열표열로 거부반응)
- ② 소양인 - 인삼(번조가 극심해진다), 부자, 밀, 황기(위수열리열하므로 거부반응)

- ③ 태음인 - 계지 인삼 백출(피부가 건조해지고 변비가 아주 심해진다), (간수열리열제로 거부반응)

(15) 적합한 약재

- ① 소음인 - 인삼, 부자, 건강, 육계, 계지, 백출, 반하, 향부자 등(보비위은제)
- ② 소양인 - 숙변, 구기자, 시호, 서과, 저육, 현삼, 산수유 등(보신 양제)
- ③ 태음인 - 대황, 마황, 녹용, 갈근, 맥문동, 연육, 오미자 등(보폐 사운 발산제)

(16) 이로운 음식

- ① 소음인 - 찹쌀, 차조, 감자, 당근, 닭, 뱀, 사과, 개고기, 노루고기, 소고기, 벌꿀, 굴비, 복어, 김, 미역, 생강, 참기름, 파, 마늘, 후추, 겨자, 토마토, 복숭아 등(과실도 날것은 많이 먹으면 해롭다)
- ② 소양인 - 쌀, 팥, 보리, 녹두, 배추, 양배추, 오이, 돼지고기, 계란, 생국, 정어리, 새우, 게, 참외, 바나나, 딸기, 감, 얼음, 장어 배 등
- ③ 태음인 - 쌀, 콩밀가루, 수수, 두부, 된장, 소고기, 우유, 무우, 계란, 도라지, 밤, 연근, 잣, 은행, 수박, 설탕, 들기름, 마늘, 후추, 호도, 잉어, 미더덕, 호박, 배 등

(17) 해로운 음식

- ① 소음인 - 보리, 팥, 돼지고기, 참외, 오이, 생굴, 바나나, 오징어, 맥주, 정갱이, 얼음, 냉차(날것, 생것, 차가운 것은 해롭다)
- ② 소양인 - 찹쌀, 차조, 닭, 개고기, 노루고기, 양젓, 감자, 고구마, 조기, 굴비, 파, 미역, 참기름, 벌꿀, 사과, 복숭아 등
- ③ 태음인 - 모밀, 모든 조개류, 생굴, 포도, 꽃감, 게, 새우 등

(18) 일상생활의 건강비결에 좋은 점

- ① 소음인 - 가벼운 운동으로 사색하는 신경을 쉬게 하고, 더운 음식과 날것, 생것, 차가운 것을 익혀 먹자.
- ② 소양인 - 심신을 편안히 안정하고, 화를 내지 말것
- ③ 태음인 - 운동과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땀을 내며, 술을 조심해야 한다

(前 경남한약회장 號栗園 경남 창원시 소개동 130-291 제일당한약방 ☎ 0551-255-4477)